

‘삼삼데이’... 반값 삼겹살로 물가부담 줄인다

유통가, 이달 대규모 할인행사
한돈회, 농협 등 1000톤 공급
이마트, 100g 1000원대 판매
온라인·편의점도 할인전 가세

고물가로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유통업계의 ‘반값’ 행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반값 치킨’, ‘반값 한우’에 이어 3월3일 ‘삼삼데이’를 맞아 지역 유통업계가 돈육 할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는 물론, 대형마트 3사에서는 삼겹살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한돈 소비 확대와 물가 안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1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

월 한 달간 한돈 소비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대형마트와 유통판매점, 하나로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 한돈 1000여톤 이상을 판매할 예정이다.

먼저 광주 30여곳, 전남 80여곳의 농축협 하나로마트 직영 매장에서는 오는 5일까지 한돈을 20% 이상 할인 판매한다.

고깃집에서 직접 한돈을 먹어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광주 20곳, 전남 17곳의 한돈 인증점에서는 주메뉴 1인분당 3000원 할인 혜택(2만원 이상 메뉴는 1인분당 6000원 할인)을 제공하고 한돈 인증 식육점은 삼겹살·목살 부위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외에도 오는 10일까지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한돈몰(https://mall.handong.com)’에서 평일에 한돈 삼겹살 세트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총 4500세트를 판매한다.

이마트도 돈육을 포함해 3월 첫날부터 장바구니 물가 안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삼겹살·목살 최대 반값 할인과 함께 물가 안정 목적으로 한우등심, 치킨, 참치, 딸기, 계란 1판 등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1등급 이상으로 선별한 국내산 냉장 삼겹살·목살을 행사카드로 구매하면 100g당 1100원, 1300원가량에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광주지역 삼겹살 100g의 소매 평균 가격은 2284원으로, 이번 반값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마트는 한우등심 구이용 1등급 700g과 한우등심 구이용 1+등급 700g 할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해 돈육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이외에도 텔리샴프, 과일, 계란 등을 평소보다 20~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5일까지 롯데슈퍼와 통합 구매한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50% 할인된 가격에, 홈플러스의 경우 3일부터 5일까지 국내산 1등급 이상 일품삼겹살·목살은 50%, 보리먹고 자란 캐나다 삼겹살·목살은 100g당 990원에 판매한다.

이번 돈육 할인행사에는 편의점도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CU는 삼겹살데이를 맞아 3일까지 목살·삼겹살 등 한돈 정육을 최대 46%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목살과 삼겹살은 통신사 및 제휴카드 할인 적용시 할인되며 신선육 구매 시 상추, 깻잎, 참무 등으로 구성된 쌈채소 세트도 무료로 증정된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가의 반값 마케팅에 소비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어 다양한 기회를 통해 관련 기획을 마련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분위기다”며 “고물가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고객분들이 모조록 행사 기간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정의선(왼쪽 세번째) 현대차그룹회장과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미한국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된 아프리카 및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 주요국 주미대사 초청 행사에서 각국 대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정의선 현대차 회장, 美서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아프리카·카리브 국가 대상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미한국대사관 주관으로 열린 아프리카 및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 주요국 주미대사 초청 행사에 참석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조태용 주미한국대사와 함께 각국 대사들에게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추진하는 한국과 부산의 비전을 강조했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이번 초청 행사는 아프리카 및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교류협력을 돈독히 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주제와 개최 의의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에서는 말라위, 말리, 모리셔

스,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토고,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바하마, 세인트키츠네비스, 앤티가바바다, 태평양 연안에서는 마셜제도 등 12개국 주미대사들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세계는 기후변화 위기와 국가 간 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준비 중인 부산세계박람회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은 다양한 위기극복과 단기간에 경제성장 등을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 교량역할이 가능하다”면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광주은행, (재)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장학금 전달

광주은행은 지난달 27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지역에 소외된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재)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달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이수권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한상원 (재)광주한마음장학재단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장학금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에 청소년과 생계가 어려운 모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장학금 전달을 통해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



의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길 바란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우리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이 끌어주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전남 ‘전자상거래 B2C 수출 컨설팅’ 확대

관세청, 플랫폼 입점설명회 성료
수출통관 절차·지원사업 등 안내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의 해외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1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28일 광주세관에서 해외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희망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광주·전남지역 내수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B2C(국내기업-해외소비자 간)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기존에 경인권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전자상거래 수출 컨설팅’을 지난해 말부터 지역 거점별로 확대하고 있으며, 부산·경남지역 설명회에 이어 이번에 광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절차 및 주요 지원사업, 3개 수출지원기관(광주전남중기청, 우정청, 중진공)이 중소기업의 글로벌 e-마켓 플레 이스 입점 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 입점 및 활용방안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28일 광주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간단한 수출신고 방법과 무역금융 신청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서 간편(전자) 발급제도 등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중기청, 우정청, 중진공 등 수출지원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수출판매를 위한 필요한 절차, 마케팅, 물류비, 사후관리 등 다양한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트렌드와 입점방법, 수출 성공사례 및 홍보방안까지 자사의 플랫폼

활용방안 전반을 소개하고 참여 기업들의 질의에 답했다.

조한진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K푸드가 건강한 먹거리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컨설팅으로 광주·전남지역의 특화산업인 농·수산물 식품 가공기업이 수출전략을 수립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디지털무역 시대에 맞는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하는 등 수출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GGM “4만5천대 생산·전기차 생산기반 구축”

상생 일터 실천결의대회 개최
2교대 전환 일자리 창출 ‘앞장’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올해 4만 5000대 생산 목표 달성과 전기차 생산기반 구축 △향후 전기차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 확보 △이에 따른 2교대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사업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달 28일 오전 본사 중앙 광장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 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안전한 상생 일터 실천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여파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판매량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올 생산

목표 4만5000대 달성을 자신했다.

또 △시장 상황 변화에 대비하는 유연한 생산체계 확립 △전기차 생산시설 완벽 구축 △향후 전기차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 확보 △이에 따른 2교대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사업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40여 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일정을 고려해 올 생산목표를 4만5000대로 정하고 매달 생산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계획된 생산목표를 100% 달성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생산과 관련, 올해 전기차 생산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시운전까

지 마무리한 뒤 내년에 시험생산을 거쳐 하반기에는 양산체제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기차 생산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 등 내수와 수출 병행으로 판로를 대폭 확대해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이와 연동해 2교대 전환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고금리 등으로 인해 자동차 업계 전반의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올 생산목표 달성과 함께 전기차 생산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 전기차 양산, 이와 연계한 2교대 전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